제9회 서울대학교발전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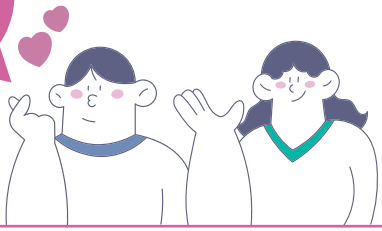
나눔 공모전 수상작 소개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발전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CREATE TOW
내일을 이루는 꿈 ★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목 차



심사평	심사위원장 황선엽 교수	05
수상소감	최우수상 최봉준	11

수상작 소개

최우수상	나눔, 비움이 아닌 마음을 채우는 가장 따뜻한 습관	15
우수상	작은 나눔이 만든 큰 따뜻함: 서울대에서 만든 사랑의 흐름	21
	서로의 진달래가 되어	25
장려상	내가 한 기부: <만만한 기부 이야기>	37
	「기부를 다시 바라보게 된 순간」	41
	내 아이에게 주지 못한 한 끼를 누군가에게	45
	작은 휘파람이 만든 울림: 만원으로 시작된 희망의 릴레이	49
	잠깐의 결심, 그 순간이 머무는 배움의 순간	53

제9회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나눔 공모전 수상작 소개

심사평

심사평

황선엽 교수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17년에 처음 시작된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의 나눔 공모전이 이번으로 제9회를 맞게 되었다. 우연치 않은 인연으로 이 공모전이 처음 시작될 때 심사를 맡았었는데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다시 심사에 임하며 여러 생각이 머리에 스친다. 처음 심사를 할 때가 생생히 떠오르니 한편으로는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는가 싶기도 하고 지난 10년을 곰곰이 되새겨 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어 격세지감을 느끼게도 된다. 아무튼 이 공모전이 기부와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는 바가 있었기에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유지되어 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학생으로 응모한 34편과 일반으로 응모한 29편이 투고되었다. 투고 편수는 작년에 비해 약간 줄었으나 초창기에 비하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예년과 같이, 발전재단과 직접 관련된 기부만이 아니라 나눔 실천과 관련된 다양한 자신의 경험을 담은 수기들도 많았다. 이 글들은 기부와 나눔이 재력이 많고 여유가 넘쳐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눔 수기 공모전의 의의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응모된 63편의 글에 대해 표현력, 독창성, 진정성이라는 내적인 측

면과 공모전의 목표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 하는 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우선 63편의 글 중 20편을 수상 가능작으로 선별하여 본선에 올렸다. 그리고 이 20편을 다시 6명의 심사 위원이 정밀 검토한 후 의견을 모아 최우수 1편, 우수 2편, 장려 5편을 선정하였다. 심사할 때에는 내용을 언어적으로 얼마나 잘 표현하였는지, 소개된 사연이 얼마나 특색이 있는지, 자신의 경험이 진솔히 잘 드러났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지 등 주어진 심사 기준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고 최종 수상작 선정시에는 심사위원 모두가 모여 숙의 끝에 이견 없이 합일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다만 개인적으로 심사를 할 때는 크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작성한 글에 대한 문제였다. 나는 개인적 경험을 담는 수기, 거기다 분량도 얼마 되지 않는 글을 쓰면서 설마 AI의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심사하였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이 모여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결론은 AI의 활용을 막을 수도 없고 그것을 확인할 묘책도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수기에 담긴 개인의 경험은 AI가 만들어낼 수 없으니 기존의 심사기준이 여전히 유효함에 동의를 하였음을 여담으로 밝혀둔다.

최우수상은 “나눔, 비움이 아닌 마음을 채우는 가장 따뜻한 습관”이란 글을 쓴 분에게 돌아갔다. 기부를 먼 이야기로 여기던 글쓴이는 봉사활동에서 받은 따뜻한 위로를 계기로 소액 기부를 실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나눔이 공동체와 자신을 함께 채우는 행복임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솔직한 인식의 변화와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기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하며 공감을 이끌어내고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하였다. 최종적으로 우수상을 받은 2편의 글과 다투었는데 심사기준 전반에 비추어 무난한 평가를 받은 이 글이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되었다.

우수상 한 편은 “작은 나눔이 만든 큰 따뜻함: 서울대에서 만난 사랑의 흐름”이란 제목의 글이었는데 외국인 유학생이 쓴 것이다. 유학생으로 생활하며 학교에서 교수님들, 동료 학생들, 직원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며 작은 배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잘 드러내었고 특히 ‘천원의 식사’를 통해 자신이 느낀 점을 잘 서술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직 본인 스스로 구체적인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받은 도움과 혜택에 깊이 감사를 느끼고 자신도 그러한 삶에 동참할 결심을 잘 밝히고 있다.

다른 한 편의 우수상은 “서로의 진달래가 되어”라는 글에 돌아갔다. 서울대 학생사회공헌단에서 봉사를 시작한 후, 발달장애 아동이나 폐지수집 어르신들과 교류한 경험을 잘 표현하였다. 특히 그러한 프로그램에 단순히 참가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한 것에 대한 기술이 인상적이었다.

이 외에 장려상 5편도 모두 개인의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잠깐의 결심, 그 순간이 머무는 배움의 공간”은 교내 행사에서 받은 상금의 절반을 기부한 학생의 수기였는데 심사 위원 다수가 이 공모전의 의의에 매우 부합하는 글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주었다. 다만 표현력이 다른 글들에 비해 평범한 편이라 장려상에 그치고 말았다.

어느 해인들 항상 평안하고 조용했겠는가마는 2025년은 국내외적

으로 대단히 시끄러우면서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야말로 또 하나의 을씨년스러운 을사년으로 기억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각박한 세태 속에서도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의 이 나눔 공모전을 통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응모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평을 마친다.

제9회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나눔 공모전 수상작 소개

수상소감

수상소감

마음이 셈법을 다시 배우다

최우수상 최봉준

과분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은 부족한 제 글솜씨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제가 뒤늦게 깨달은 '나눔의 참된 의미'를 평생 잊지 말고 실천하라는 준엄한 격려로 다가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오랫동안 저에게 나눔이란 '내 것을 덜어내는 뺄셈'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타인을 위한 배려는 여유 있는 자들의 사치라고 여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내 몫을 챙기기에도 급급했던 저의 좁은 시야 속에서 기부와 봉사는 곧 '손실'이라는 단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며 지난 시간들을 복기하는 과정은, 저의 그 잘못된 셈법을 철저히 깨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눔은 내 지갑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메마른 마음을 온기로 채우는 '가장 확실한 덧셈'이었습니다. 타인에게 건넨 작은 손길이 돌고 돌아 결국 나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몸담은 이 캠퍼스 또한 누군가의 고귀한 나눔 위에 세워진 숲임을 기억합니다. 이름 모를 선배님들과 후원자분들이 심어둔 나무 그늘 아래서 제가 쉼을 얻고 성장했듯,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위한 그

늘이 되어야 할 차례임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 지면을 빌려 저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신 서울대학교발전재단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밝히는 모든 기부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활자로 남겨질 이 글을 단순한 기록이 아닌 제 삶의 약속으로 삼으려 합니다. '나중에'라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작게나마 실천하겠습니다. 나눔이 비움이 아닌 채움이라는 이 아름다운 역설을, 글이 아닌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2.27. 공모전 수상자

최 봉 준

제9회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나눔 공모전 수상작 소개

최우수상

최우수상

나눔, 비움이 아닌 마음을 채우는 가장 따뜻한 습관

최봉준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저에게 기부나 나눔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꽤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뉴스를 통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가나, 시장에서 김밥을 팔아 모은 돈을 대학에 기탁하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면 "참 훌륭하다"라고 감탄하면서도, 그것은 제 삶과는 분리된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야지." 이것이 제가 나눔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빠듯한 학업과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당장의 내 삶을 건사하기도 바쁘다는 현실적인 핑계들은 기부를 막연한 미래의 숙제로 미루어 두기에 충분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기부란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손실이며, 내가 가진 것을 덜어내는 비움의 과정이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편견은 제가 스스로 나눔이 주는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장벽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막연하고 정체되어 있던 그 시기, 우연한 기회로 마주한 봉사의 현장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유독 춥고 마음마저 움츠러들던 작년 겨울, 저는 호기심 반 의무감

반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맡은 역할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식사를 돕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잠시 곁을 지키는 소소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내가 그들을 돕는다는 시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봉사 시간을 채우고, 좋은 일을 했다는 자기만족을 얻고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한 분은 저의 그런 얄팍한 생각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건넨 것은 고작 따뜻한 물 한 잔과 짧은 대화뿐이었지만, 그분은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찾아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그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그곳에 갔지만, 팍팍한 현실에 지쳐있던 제 마음을 위로한 것은 오히려 그분의 따뜻한 감사 인사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봉사활동의 피로가 아니라 형용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눔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함께 채워가는 쌍방향의 소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을 통해 나의 마음을 채우는 가장 확실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봉사 현장에서의 경험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몸으로 하는 봉사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이 무엇일

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것이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의 나눔 캠페인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기부 배너가 그날따라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기부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길 때, 솔직히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매달 커피 몇 잔 값인 이 작은 돈이 과연 학교에, 그리고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 때 느꼈던 그 온기를 믿고, 작게나마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나의 작은 참여가 모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우들에게 선한 인재 장학금이 되고,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에게 든든한 '천원의 식샤'가 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엄청난 효능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낸 기부금이 캠퍼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끼니가 되고, 누군가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자존감이 되었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아주 조금 줄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허기는 오히려 든든하게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부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를 함으로써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말을 비로소 몸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 식당에서, 도서관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학우들이 남처럼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나눔을 거창한 결심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밥을 먹고 숨을 쉬듯, 내 삶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유지하는 행복한 습관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유지하게 하듯,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분들의 기부와 나눔이 우리 사회와 학교를 지탱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라는 공간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때로는 장학금으로, 때로는 쾌적한 학습 공간으로, 알게 모르게 선배님들과 후원자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금액, 작은 봉사로 시작하지만, 훗날 사회에 나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주저 없이 더 큰 나눔을 실천하는 선배가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을 통해 이어진 이 작은 나눔의 인연이, 앞으로 제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넓은 세상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 이야기가 아직 기부를 망설이는 누군가에게, 혹은 나처럼 기부는 부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학우들에게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다”는 용기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날 춥고 떨리던 봉사 현장에서 어르신의 손을 잡고 위로받았던 것처럼, 저의 작은 나눔 또한 캠퍼스 어딘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이자 든든한 응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눔은 비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채우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제9회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나눔 공모전 수상작 소개

우수상

우수상1

작은 나눔이 만든 큰 따뜻함: 서울대에서 만든 사랑의 흐름

이명아
일반대학원 소비자학과

저는 나눔과 기부가 결국 사랑을 전하는 일, 따뜻함을 이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건네질 때 비로소 흐르고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다면 작은 공간에 머무는 사랑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나누는 순간 그 힘은 더욱 커지고,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냅니다.서울대학교에 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오랜 기간 해외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와 생활 방식의 차이, 그리고 영어·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까지… 솔직히 처음에는 긴장되고 막막한 마음이 컸습니다. '과연 잘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자주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 교과서에서 읽었던 '지구촌'이라는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상적인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하지만 서울대에서 생활하면서, 이 말이 제 삶 속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선의와 사랑의 나눔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서울대는 작은 '지구촌' 같은 공간이 아닐

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탓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복습해야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고, 혹시 뒤처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도 컸습니다.하지만 정말 따뜻했던 것은——교수님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천천히 다시 설명해 주거나, 시험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먼저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짧은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또 저는 기숙사 신청이 늦어져서 외국인등록증 주소 변경을 따로 해야 했는데, 학교 행정 선생님들과 출입국사무소 직원분들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제게는 그런 세심함이 큰 힘이 되었고, 말 없는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듯 작은 친절들이 쌓여 제 서울 생활은 훨씬 편안하고 든든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작은 선의가 정말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구나."그런 경험 덕분인지,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따뜻함'을 더 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 바로 '천원의 식사'였습니다. 처음 '천원의 식사'를 알게 된 건, 한 문구점에서 우연히 포스터를 봤을 때였습니다. 호기심에 한 번 가봤는데, 그 한 끼가 제 예상보다 훨씬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음식은 든든한 한식이었고, 양도 넉넉했습니다. 밥도 마음껏 더 먹을 수 있었고요. 식당에서 음식을 내어주시던 아주머니들의 미소는 마치 집에서 밥을 받

아먹는 듯한 포근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부 졸업 후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뒤늦게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 한국의 식사 물가가 생각보다 높은 편이라는 것을 금방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천원의 식사'는 제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의 따뜻함을 매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판을 받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 덕분에 유학생인 저도 하루를 든든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식사 물가가 높은 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천원으로 따뜻하고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건 학생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저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부해 주는 분들이 있어,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나마 행복과 안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것도 바로 하나의 '사랑의 흐름'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반드시 기부에 참여해 지금 제가 받은 이 따뜻함을 다시 누군가에게 건네주겠다고.

우수상2

서로의 진달래가 되어

장현진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내가 처음 서울대학교 학생사회공헌단에 들어간 건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였다. 주어진 봉사활동에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내 눈길을 끌었다. 신입 단원으로서 학생사회공헌단에 들어갔을 때는 이전 기수에서 기획해 놓은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했기에, 나는 발달장애 아동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푸릇푸릇' 팀에 들어갔다. 내가 사회공헌이 주는 기쁨에 물들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한동안 나는 인생의 큰 목표를 이루어냈다는 자부심에 취해 있었다. 하지만 점점 그 자부심의 거품은 꺼졌고, 비로소 현실을 직시했을 때 내 주변에는 나보다 부유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외모도 뛰어나며, 심지어 나보다 착하기까지 한 학생들이 천지에 널렸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었다. 너무도 완벽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집단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위축되었다.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대학교에 와보니 나라는 존재는 '평범' 혹은 그 이하 같아 보였다. 영어 교양 강의 시간에 나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 사이에서 위축되며, '내가 서울대학교에 어울리는 사람이 맞을까?' 가끔은 생각하기도 했다. 그때의 나는 나의 존재 가치와 특별함을 설명하려 애썼다.

그랬던 내가 변화한 것은 봉사를 시작한 이후부터였다. 1학년 2학기 때는 서울대학교 학생사회공헌단, 그리고 방배노인종합복지관 내의 식당 업무 보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식판을 대신 들어드릴 때면, 어르신들이 나에게 말하고는 했다. '어유 고마워 학생!', '땡큐 쏘 머치!' 학생사회공헌단에서 발달장애 아동과 교류 활동을 할 때면, 아이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를 빤히 바라보았고, 어딘가로 걷고 싶어지면 내 손을 꼭 잡았다. 나와 풍선을 주고받으며 놀 때, 낙엽을 가지고 놀 때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행복해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순간에는, 나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가 쉬워졌다. 나의 도움으로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순간, 나는 최고가 아니어도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사회공헌이 주는 기쁨에 취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내가 직접 문제의식을 느끼고 기획한 활동으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 싶었다. 나는 당시 타 기관인 '끌림 컴퍼니 협동조합'에서 폐지수집 어르신에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며 늘 무거운 리어카를 끌며 고되어 보이는 어르신들의 삶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 무렵 뉴스에서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다른 어르신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라는 점을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에는 폐지수집 어르신 대상 우울감 치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했고, 지난 학기 수묵화 강의를 들으며 그림을 매개로 '나'를 표현하는 것에 치유를 느꼈던 나는 '미술힐링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우울감이 높은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미술힐링 프로그램을 진

행하자'라는 나의 제안은 감사하게도 그 학기의 추진 대상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으로서 '재생과 치유' 팀의 팀장을 맡게 되었다.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높여 부르는 다른 표현인 '자원재생활동가' 분들의 치유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팀 이름이었다.

폐지수집 어르신들은 특정 기관에 속해있지 않으시기에, 모집부터가 난관이었다. 복지관, 시니어클럽, 관련 소셜벤처 등 폐지수집 어르신들과 연락이 닿을만한 기관들에 한 달 내내 연락해 보았지만 대부분 협조를 거절했고, 남은 건 '맨땅에 헤딩'하는 방법이었다. 폐지수집 어르신들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리어카에 폐지를 모으고, 모은 폐지들을 팔러 고물상에 들르신다. 우리는 관악구 내의 고물상을 모두 돌며, 2~3시간씩 앞에 서서 어르신들이 방문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핫팩으로 꽁꽁 언 손을 녹이며 팀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기다렸던 그 계절에, 몸은 추울지언정 마음만은 누구보다 뜨거웠었다. 그렇게 우리는 고물상에 들르는 어르신들을 인터뷰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을 모집했다. 몇몇 어르신들은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학생들을 경계하며,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런 거 안 해요'라며 자리를 피하시기도 했고, 어떤 어르신은 인터뷰 중에 가정사를 이야기하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다.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대내외에서 받은 외면이 마음을 차갑게 식혀도, 누군가의 눈물에 순식간에 다시 열정이 달아오르곤 했던 겨울이었다.

그렇게 어찌저찌 참여자들이 모집되었고, 벚꽃이 만개할 무렵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미술힐링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서울대학교 미술

대학에서 모집한 미술팀 6명과 함께, 재생과 치유팀 단원들은 매주 미술힐링 콘텐츠를 기획하고 준비했다. 완성도 높은 기획을 위해 미술치료 교수님을 초청하여 코칭을 받기도 했다. 4월 6일 이루어진 첫 회차에서는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나'에 대한 각종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으로 포스터를 꾸미는 활동을 했다. 색종이, 색연필, 마카에서부터 뽕뽕이, 반짝거리는 펜, 레이스, 꽃 모형까지 가지각색의 미술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던 어르신들은 금세 소년, 소녀의 모습으로 이것저것 꾸미는 데 열중하시는 모습이었다. 가장 많은 이야기가 오간 질문은 '내 어릴 적 꿈'이었다. 어떤 어르신은 과학자가, 어떤 어르신은 간호사가 꿈이었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해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도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꿈이었는데, 하나도 못 이뤘어요.'라고 내가 능청스럽게 말하자 어르신들 사이에 웃음이 만발하기도 했다. 삶에서 쉽게 접해보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고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며 어르신들은 옆자리 어르신들과 소소한 대화도 나누고, 재생과 치유팀 단원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셨다. 나의 아이디어로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나는 첫 회차 전날 잠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긴장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학생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나 또한 즐겁고 벅차올랐다.

다시 일주일간 회차 준비의 시간이 주어지고, 4월 13일에 2회차가 돌아왔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고려하여, 우리는 매번 10여 명의 참여 어르신들을 택시 3대로 나누어 픽업했다. 나는 픽업이 효율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주 지도 위에 픽업 루트를 짜고, 어르신들에게 여러 번 연락을 드려 픽업 시간과 장소를 공지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픽업이었기에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없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날 내가 픽업해야 하는 다섯 분의 어르신 중 네 분의 어르신은 약속 장소인 '서울대벤처타운역 1번 출구'에 시간 맞추어 나와주셨지만, 한 어르신은 나오지 않으셨다. 네 분을 먼저 택시에 태워 프로그램 장소로 보내고, 나머지 한 분께 전화를 걸었다.

'어르신 지금 어디세요?'라는 나의 물음에 어르신은 '아까부터 약속 장소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라고 답하셨다. 하지만 서울대벤처타운역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어르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어르신께 '어르신 혹시 지금 주변에 뭐가 보이세요?'라고 물었고, 어르신은 꽃이 보인다고 답하셨다. 서울대벤처타운역 근처에는 꽃이 한 송이도 없었기에, 나는 그때에서야 어르신이 계신 곳이 엉뚱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어르신은 서울대벤처타운역 바로 옆에 사시지만, 픽업하느라 힘들 학생들을 배려해서 프로그램 장소와 더 가까운 관악산역까지 스스로 오셨던 거였다. 나는 부랴부랴, 중간에 계단에서 넘어지기도 하며 관악산역으로 갔다. 더운 날씨에 오래 기다리셨을 어르신을 생각하니 죄송했다. 관악산역에서 프로그램 장소까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지만, 택시로 가기에는 짧은 거리라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 결국 걸어가야 했는데, 프로그램 장소까지 오르막길과 구불구불한 계단길이 많아서 걱정이었다. 어르신은 리어카에 몸을 의지해야만 걸으실 수 있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르신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중간에 길을 헤매기도 하며 프로그램

장소로 갔다.

학업과 동아리 등에 치여 바쁘게 살 때는 몰랐는데, 어르신과 함께 발맞추어 느리게 걸으니 학교 곳곳에 개나리, 민들레, 진달래 같은 예쁜 꽃들이 많이 피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걸어가면서 어르신과 소소하게 서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어르신은 2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셨고, 자녀들은 모두 멀리에 살고 있어서 현재는 TV를 유일한 벗 삼아 지내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러 오는 날이면 즐겁다고 하셨다. 어르신이 내 이야기도 물으셔서, 나는 20살까지 대전에 살다가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자취하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그렇게 서로의 삶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프로그램 장소에 거의 다 도착해 있었다.

1회차를 시작할 때만 해도 프로그램 장소 앞에 벚꽃이 만개해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벚꽃은 다 져 있었다. 그걸 보고 나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벚꽃이 만개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네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르신은 '그 대신 진달래가 예쁘게 피었잖아.'라고 말씀하셨다. 진짜 그랬다. 벚꽃이 진 자리에는 벚꽃보다 한층 선명한 분홍빛을 가진 진달래가 화사하게 만개해 있어서, 벚꽃은 졌어도 아직 봄이 지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문득 우리 프로그램이 어르신에게 진달래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식들도 다 키워서 떠나보내시고, 남편도 떠나보내셔서 인생의 벚꽃이 다 져버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주 어르신들과 함께할 토요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여기 진달래로 활짝 피어있으니, 어르신의 봄은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어르신들과 재생과 치유팀 단원들의 사이는 가까워졌다. 어떤 어르신은 정이 든 학생에게 주기 위해 집에서 참외를 가져오시기도 했고, 한 학생이 오늘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현장에 참여하는 날이라고 하면 서운한 마음에 함께 사진을 여러 장 찍어 가시기도 했다. 그 무렵 나는 어르신들의 미술작품을 굿즈로 상품화하여 판매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도움을 드리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유명인과 협업하는 것에 열정을 기울이고 있었다. 열심히 컨택한 결과 연애 리얼리티를 통해 유명해지신 한 화가분께서 협업을 수락하셨다. 하지만 마지막 회차인 협업 회차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해당 유명인 분에게 협업 무산 의사를 정중히 전달했다. 마지막 회차를 인플루언서와 함께 보내는 것은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방향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도 토요일에 갈 곳이 생겼다.', '토요일이 언제 돌아오려나 생각하며 시계를 쳐다본다.'라는 어르신들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서로에게 선물하는 치유에서 행복감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이 프로그램의 본질은 향후 금전적 보상이나 광범위한 홍보에 있는 것이 아닌 치유 자체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학생들과 헤어지기를 아쉬워하는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마지막 회차는 학생들과 온전히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 유명인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유명인과의 협업 계획을 폐지하고, 학생들과 어르신들의 소통에 집중할 수 있는 특별 회차를 마지막 회차로 기획했다. 윷놀이, 공기놀이, 고리 던지기 등 어르신들이 어렸을 적 즐겨 하셨던 추억의 놀이를 함께한 마지막 회차에는 그 어

느 때보다 밝은 웃음소리가 현장을 가득 채웠다.

그렇게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한 학기가 지나갔다. 우리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과정에서 직접 만드신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신도림역 전시회도 개최했다. 미술을 통해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설계된 그 전시회에는 600명 이상의 행인이 와서 전시를 관람하고 따뜻한 후기를 남겨 주셨다. 전시 마지막 날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오셔서 전시를 관람하시며, 본인들이 주인공이 된 전시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놀라시고 기뻐하셨다. 그리고 전시회 현장을 이것저것 사진으로 담아가셨다.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봄을 마주한 것은 폐지수집 어르신뿐만이 아니었다. 하루는 어떤 어르신께서, 고물상 앞에서 가방을 메고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오시기를 기다리던 내 모습을 표현했다며 한 소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주셨다. 그 그림을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 걸어두며 나는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삶에서 진달래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서로의 삶에 진달래가 되어 봄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물론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가끔 학업과 팀장 업무를 병행하며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는 순간을 마주하기도 하고, 여러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하루는 어르신들이 귀가 택시를 두고 빗속에서 싸우시는 바람에 비를 맞으며 중재했던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아무리 고되어도, 다시 어르신들의 웃음을 마주하는 날에는 구름이 걷히고 마음의 봄이 찾아왔다. 이 활동을 계기로 나는 내 삶의 봄을 마주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나의 아이디어로 누군가가 행복해할 때, 내

마음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절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나는 여전히 달리고 있다. 2학년 여름방학 때는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멘토링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영감을 얻어 2학기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책 편찬 사업을 총괄했다. 3학년이 되고 나서는 어렸을 적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야학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 중장년 여성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퓨전 밀키트 사업을 총괄하기도 했다. 그렇게 누군가의 진달래가 되고, 또 나의 진달래가 되어준 그들을 바라보며, 나는 변치 않는 봄을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봄을 선물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고민하고 또 발로 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제9회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나눔 공모전 수상작 소개

장려상

장려상1

내가 한 기부: 〈만만한 기부 이야기〉

김도희
농경제사회학부 22학번 학부모

아들이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에 합격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했다. 중학생 때부터 꿈꿔온 바로 그 학과, 그것도 바늘구멍 같은 정시 전형을 뚫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들어간 아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웠는지 모른다. 합격자 발표를 본 그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수백만 원을 내라 해도 당장 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고마운 학교가 있나!"

그 기쁨은 3월 한 달 내내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에 예쁜 소식지가 도착했다. '만만한 기부'라는 제목이 붙은 리플렛이었다. 창의적인 기부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기부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몇 번의 클릭이면 끝. 그리고 금액은 만 원. 이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임 없이 신청했다.

하지만 한 학기가 지나고, 매달 '기부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알림이 올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오지?'

'다른 데도 기부하고 있는데, 괜히 시작했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서, 그 마음은 본격적

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어차피 학교에 안 다니는데 굳이 계속 해야 하나?'

'우리 아들이 잘해서 들어간 건데, 학교가 뭘 해줬다고?'

'공군은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2~3년인데, 그동안 계속 해야 하나?'

이런 아까운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렇게 기부를 멈출까, 고민하던 어느 날, 우편함에 한 장의 카드가 도착했다.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총장님의 서명이 담긴 생일 카드였다.

그 카드 한 장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연년생 아이들 입시에 온통 매몰되어 살던 나날들, 내 생일은 어느새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날이 되어 있었다. 생일을 핑계로 아이들이 학원을 빠지거나 공부를 소홀히 할까 봐 그냥 지나가고 싶은 날이 돼버렸다. 그런데 이 나이에 생일 카드를 우편으로 받다니. 그것도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그 따뜻한 마음에, 나는 다시 기부를 이어갈 수 있었다.

아들이 군 복무 중일 때, 나는 종종 말했다.

"서울대학교의 좋은 시설, 훌륭한 총장님과 교수님들을 낮은 등록금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야. 너도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꼭 갚아야 해."

아들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했다.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잘해서 들어간 건데 뭘."

그렇지만 나는 내가 지속해서 한 말이 언젠가는 아이 마음속에 남

을 거라 믿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회인으로 자라났으면 기도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제대하고 학교로 복학했다. 축구에 푹 빠진 아들은 새벽 6시에 일어나 동아리 축구 연습을 하러 학교에 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학교에서 천 원만 내면 아침밥을 줘! 진짜 맛있고 따뜻한 국도 있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요즘 세상에 천 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며칠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그 기부… 혹시 천 원 아침밥 후원하는 거야?"

"응, 맞아. 그거야."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 그거 몰랐어. 그냥 엄마가 군대 간 김에 기부도 그만둔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그 아침밥 덕분에 하루를 버틴다고 하더라. 나도 그걸 먹고 있고. 엄마가 왜 학교에 기부하는지 아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요즘은 친구들을 보고 기분이 더 좋아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아들도 같이 하자. 사회인이 되어서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하자. 아니,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냥 의무라고 생각하자."

솔직히 지금도 가끔은 '이 돈으로 뭐 하나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큰돈은 아니지만, 마음 한쪽이 흔들릴 때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초창기처럼 망설이지 않는다.

기부는 '아깝다'는 마음을 넘어서면 더 큰 행복이 찾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기부는 거창한 게 아니었다.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마음. 그 마음이 모여 또 다른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면, 그보다 더 보람찬 일이 있을까.

아들과 나,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천 원의 아침밥과 백만 원의 마음을 나누고 있다. 내일이 되면 또 새벽 운동을 하러 학교로 향하는 아들의 뒷모습이 그려져 빙그레 웃음을 짓게 된다.

장려상2

「기부를 다시 바라보게 된 순간」

김 민 정
의과대학 의과학과 생화학교실

글을 써보기로 마음먹고, 기부란 무엇인지 처음으로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기부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기억난 것은 학부 시절 신문에서 보았던 한 기부자의 이야기였다. 청량리 시장에서 평생 과일 장사를 하며 어렵게 모은 700억 원을 학교에 기부한 노부부의 인터뷰였다. 수면바지를 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두 분의 사진과 함께, 그분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글이 실려 있었다. 나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기부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긴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는 고귀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인지 나는 아직 그런 마음을 실천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고 여겼고, 자연스럽게 기부를 내 삶과 연결해 본 적은 없었다. 사고 싶은 물건을 위해 돈을 모으거나, 유료 프로그램을 구독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 데에는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기부만큼은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행동처럼 느껴졌고, 생각조차 깊게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 이번 공모전을 접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기부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처음 떠올랐다.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았던 경험은 있었지만, 현재는 별도의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기에 처음엔 나와 크게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니, 내가 매일 연구를 이어가는 환경에도 누군가의 기

부가 스며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2021년, 국내 대기업 회장 유가족이 소아암 및 희귀질환 환아를 돕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에 3천억 원을 기부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그 기부가 실제로 연구 환경과 여러 프로젝트의 운영에 활용되고 있으며, 나 역시 그 혜택 속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 내가 매일 무심코 드나들던 연구실의 일상 속에도 누군가의 나눔이 닿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나에게 기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연구가 쌓여 치료제 개발과 같은 성과로 이어질 경우, 그 혜택은 단 한 사람을 넘어 더 많은 이들에게 확산될 수 있다. 누군가 기부로 보탠 작은 한 조각이 연구의 기반이 되고, 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기부는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나눔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계속 확장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나눔은 마치 작은 씨앗이 커다란 나무로 자라는 과정처럼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나는 '나는 어떻게 기부를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다. 이 질문을 떠올렸을 때 알게 된 것이'만만한 기부'였다. 매월 만 원 정도의 소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이었다. 지금의 나도 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이었고, 작은 마음들이 모이면 실제로 장학금, 연구 지원, 학생 복지 등에 의미 있는 도움이 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달

ChatGPT 구독료를 내고, 넷플릭스를 보고, 구글 드라이브를 유료로 사용하면서도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그처럼 나 자신을 위한 소비에는 익숙하면서도, 정작 누군가를 위한 기부에는 쉽게 마음을 내지 못하고, 늘 어렵고 멀게 느껴졌다는 사실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생각해보면 기부는 거창한 결심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보탤 수 있는 아주 작은 금액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학업을 이어갈 기회가 되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부는 반드시 금전적인 나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일 또한 누군가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부는 돈이 많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마음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말이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는 동안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다.

이번 공모전은 나에게 기부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 계기였다. 기부는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눈부신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도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주 작은 금액부터라도 기부를 시작해보려 한다. 동시에, 내가 가진 전공 지식과 연구 경험을 누군가와 나누는 방식의 기부 역시 이어가고 싶다. 금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지금의 나에게 재능 기부는 내가 가진 것을 가장 솔직하게 나누는 방법이기도 하다.내가 누렸던 도움과 나눔을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다시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기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자리할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작은 시작이지만, 그 씨앗이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나무로 자라기를 기대하며, 나도 나눔의 첫 걸음을 내딛어 보려 한다. 내가 누렸던 도움과 나눔을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장려상3

내 아이에게 주지 못한 한 끼를 누군가에게

조미영
서울대학교 후원자

퇴근길, 버스 안에서 무심히 휴대폰 뉴스를 넘기다 '천원의 식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기부 캠페인이라고 했다. 화면 속 학생들이 식판을 들고 웃으며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낯설 만큼 따뜻했다. 짧은 뉴스였지만, 그날 그 영상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다. 그리고 저녁을 먹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아이는 오늘 밥을 챙겨 먹었을까?"

아이를 대학에 보낸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처음엔 매일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니?" "잠은 잘 자?" 하고 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횟수가 점점 줄었다. 아이는 늘 "괜찮아, 잘 지내"라고 말했지만, 그 '괜찮아' 속에 담긴 진짜 마음을 나는 안다. 혼자 사는 청춘에게 밥 한 끼는 생각보다 더 큰 의미다. 피곤하면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시험 기간에는 커피로 하루를 버티는 게 요즘 아이들의 일상이다. 그래서 '천원의 식사'라는 이름이 내게는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라, 한 세대의 마음을 돌보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기부 페이지를 열었다. 기부 금액을 입력하는 칸 앞에서 손이 잠시 멈췄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커피 두세 잔 값에 불과한 금액이지만, 그게 누군

가의 점심이 된다면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 싶었다. 클릭 한 번으로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건 해볼 만한 일이라고 느꼈다. 그렇게 나는 '천원의 식사'의 기부자가 되었다.

며칠 뒤, 학교 홈페이지에서 기부자 명단이 공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호기심에 들어가 이름을 찾아봤다.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내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아, 내가 정말 누군가의 밥 한 끼를 책임졌구나."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뜨거워졌다. 얼굴도 모르는 학생이지만, 그 한 끼가 그들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덜 고단하게 만들었기를 바랐다.

며칠 후 점심시간, 우연히 학교 근처를 지날 일이 있었다. 식당 앞에는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천원의 식사'라고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식당 안에서는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오늘 메뉴 뭐야?" "와, 진짜 맛있다!" "천 원이라니, 진짜 감사하다." 그 대화들을 들으며 나는 알 수 없는 따뜻함에 잠겼다. 그 아이들이 다 내 자식 같았다. 내 아이는 멀리 있었지만, 저 학생들의 웃음 속에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다. 기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밥값을 대신 내주는 일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내가 한 일은 아주 작은 기부였지만, 그 안에는 부모로서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잘 먹고, 힘내서 공부해라. 너를 응원하는 어른이 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기부를 한 뒤로, 내 삶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뉴스나 기사에서

‘청년의 빈곤’ ‘대학생의 끼니 문제’ 같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이제는 ‘나도 그 곁에 조금은 서 있다’는 마음이 들었다. 작은 기부였지만, 그 마음이 내 일상을 더 따뜻하게 바꿔놓았다.

얼마 전 다시 ‘천원의 식샤’ 소식을 들었다. 기부자 명단이 더 길어지고, 더 많은 학생들이 따뜻한 밥을 먹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중 어딘가에 여전히 내 이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든든했다. 그 이름이 내 아이를 위한 마음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모든 청년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되어 있었다.

나는 앞으로도 이 기부를 이어가려 한다. 내 아이가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과 배려로 성장하듯, 나 또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고 싶다. ‘천원의 식샤’는 단지 식사 지원 사업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정한 다리다. 그 다리 위에서 나는 부모로서,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따뜻해졌다. 언젠가 내 아이도 사회에 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어지는 마음의 순환 속에서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장려상4

작은 휘파람이 만든 울림: 만원으로 시작된 희망의 릴레이

최은영
경영대학 학부모

2025년은 교단에 선 세월이 햇수로 스물아홉 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농어촌 마을의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깨달은 것은, 가난이 아이들의 꿈에 드리우는 그림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도시 아이들처럼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어떤 학생들은 기본적인 학교생활조차 힘겨워했습니다. 교사로서 마주하는 이 안타까움이, 나의 아주 오래된 나눔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기부라고 할 수도 없는 활동이었습니다. 교사 월급인지라 매번 지갑이 얇아졌지만, 근심 가득했던 아이들의 표정이 점차 밝아지고 학교에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보람은 어떤 금전적 가치로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나눔이란, 교실 속 아이들의 눈빛에 드리운 그늘을 걷어내는'교사로서의 책임감'이자, 29년을 버티게 해준 삶의 따뜻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렇게 29년을 살면서도, 저는 나눔의 영역을 학교 밖으로 넓히는 것을 주저했었습니다. 낯설고 복잡한 절차, 혹은 내가 가진 작은 금액이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망설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저의 나눔이 서울대학교발전재단과 연결된

것은 큰아이가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고 나서였습니다. 아이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동문들의 도움과 다양한 교육시스템의 혜택을 받았음을 깨닫자, 나 역시 그 울타리 안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바로 '만만한 기부' 캠페인이었습니다. "만원으로 만 명의 나눔"을 목표로 하는 그 슬로건은, 기부를 큰 숙제로 여기던 나에게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다'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건네주었습니다.

현재 3년째 '만만한 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만 명의 참여자가 모여 월 30만 원씩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 후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시골 학교에서 해왔던 소박한 나눔의 실천이,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더 넓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확장된 것입니다. 매달 전달되는 3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고 꿈을 키우며, 근심 없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한 달 만원이라는 소액이 다음 세대의 가능성을 지키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기쁨이자 긍지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저는 교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을 선물 받았습니다. 20여 년 전,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학생의 생활비를 지원했던 제자 중 한 명이 40대가 되어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휘파람'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설명하는 모임 이름의 의미는 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휘파람'은 '휘'청거리지 않고 '파랗게 자라나기를 '람'(바람)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이름이기도 했지만, 더욱 중요한 의미는 선

배가 전하는 장학금 덕분에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걱정 없이 "학교에서 신나고 즐겁게 휘파람을 불면서 공부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눔의 재해석인가요. 과거에 받은 도움을 '빚'이 아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희망'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20여명의 아이들이 십시일반 모은 1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는 소식은, 나의 작은 나눔이 비로소 '릴레이 장학'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보다 몇 배 더 값진, 나의 교직 생활을 완성하는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부의 가치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함께하는 마음과 지속적인 행동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골 교사의 작은 실천이 '만만한 기부'를 통해 튼튼한 뿌리를 내렸고, 이제는 제자들의 '휘파람' 소리를 타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선한 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희망의 릴레이'가 멈추지 않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동참할 것입니다. 나의 작은 나눔이 전국 각지의 아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마음에 걱정 없는 밝은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그리고 그들이 미래에 또 다른 '휘파람'을 불어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려상5

잠깐의 결심, 그 순간이 머무는 배움의 공간

최진석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상금 받으면 절반은 기부해야겠다."

지난 8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운 여름날이었다. 학교에서 친구와 최종 제출을 앞두고 대회 발표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다. 'FastMRI'라는 전기정보공학부에서 주최하는 교내대회였다. 7월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 기간에 진행되는 이 대회는 MRI 찍는 시간을 단축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병원과 환자 모두가 반가워할 만한 기술이었다. 한 팀은 최대 2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친구와 나 모두 공대생으로서 AI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할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참가했다. 총상금 2천만 원, 1등 상금은 천만 원으로 학부생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 중 최대 규모라 더 의욕이 생겼다. 총 38개 학과(부) 183개 팀 280명이 참여한 큰 행사였다. 친구와 나는 대회 중반 이후부터 거의 매일 같이 붙어 다니며 학교에서 점수를 올리는 데 매진했다.

우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었다. 작년에는 GPU를 늦게 배정받아 충분히 시도하지 못하고 대회가 끝나버려 아쉬움이 남았다. 올해는 작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최대한 많은 GPU를 확보해 가능한 한 많은 방법을 직접 시험해 보고자 했다. 그러던 중, 학과 전산실 컴퓨터

가 좋은 GPU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회 종료를 3주 앞두고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돌리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빠른 학습 속도 덕분에 다양한 조합을 시도하면서 모델의 성능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학교 시설 덕분에 더 의미 있는 두 번째 도전을 이어갈 수 있어 감사했다.

대회 종료를 앞두고, 우리 팀은 리더보드에서 3위였다. 최종 평가 데이터셋이 별도로 있어 최종 발표 때까지 순위를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수상권이라는 기대가 조금씩 현실처럼 느껴졌다. 시상대에 서는 날을 꿈꾸며 달려온 한 달여의 시간이, 하루하루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며 지새운 밤이, 학습 결과를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확인하던 다음 날 아침이 다 끝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 큰돈을 받아도 될까 하는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했다. 상금을 받으면 축하 회식도 하고, 제출을 마치면 개강 전까지 잠시 쉬어야지 하는 막연한 상상을 했지만, 아직 모든 일이 현실이 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여태 학교에 오던 관성에 이끌려 내일도 여기 와 있어야 하나 싶은 마음이 오히려 더 컸다. 상금이 생기면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달려왔다.

그러다가, 천원의 식샤가 떠올랐다. 상금을 받고 나면 절반은 다시 학교에 나눠야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8월에 거의 매일 학교에 나왔는데, 좋은 시설을 내어준 학교에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잠깐 생각하고 말로 뱉었다. 말로 뱉어야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상금 받

으면 절반은 기부해야겠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내가 다 쓰는 건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면 나는 뭐가 돼? 그런데, 나도 상금 받으면 부모님 어느 정도 드릴까 하긴 했어.”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아직 대회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상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 후, 산책을 잠시 나갔다 왔다.

기부가 처음은 아니었다. 작년 아너 월이 생기면서 기부를 시작했는데, 작년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기부했다. 학생회관 식당에 방문해서 벽에서 내 이름을 찾고 사진을 찍었던 기억도 난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뿌듯함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 대회가 끝나갈 무렵, 그때의 마음이 떠올랐다. 1, 2학년 때 자주 찾았던 그 식당이 앞으로도 오래 천 원의 학식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서로를 돕고 나누는 문화가 자연스레 퍼져, 훗날 졸업한 학생들이 다시 학교 발전에 힘을 보태는 선순환이 지속되기를 바랐다.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오랜 시간을 보낸 제1공학관의 여러 시설 역시 해동과학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곳이 많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학교의 컴퓨터를 빌려 쓰며 대회에 참가하고 공부했던 것처럼, 졸업생들이 학교를 위해 보탠 지원이 다시 후배들의 배움에 쓰이고, 이것이 또 다른 기여로 이어지기를 바랐다.

우리 팀은 최종적으로 3등을 하면서 25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둘이 나눠 세금을 제하고 내게 들어온 금액은 119만 5천 원, 그중 1/4인 30만 원을 11월에 기부했다. 남은 30만 원도 6개월 후 기부할

예정이다. 기부를 결심한 순간도, 실행한 순간도 잠깐이었지만, 그 선택이 작은 출발점이 되어 선한 영향력으로 오래도록 이 공간에 남아 있으면 좋겠다.

memo.

memo.

memo.

memo.

너와 나, 마음을 잇는 나눔의 순간
당신의 진심이 만들어 낸 따뜻한 변화

서울대학교발전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CREATE TOMORROW
내일을 여루는 꿈 ★ 서울대학교발전재단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전화 02-871-8004 | 팩스 02-871-2458 | 이메일 snuf@snu.ac.kr | 홈페이지 www.snu.or.kr